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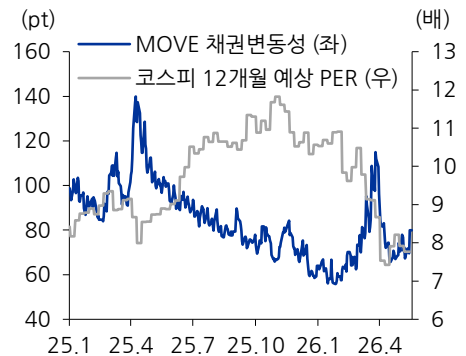
Equity Strategy

글로벌전략 허재환
6176/jaehwan.huh@eugenefn.com

걱정할 것(금리)과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(외국인)

- “ 파죽지세였던 코스피는 8천pt 돌파 직후 돌변함. 단연 악재는 인플레이와 금리 부담임. 미국 2년물 금리는 4%를 상회함. 10년물은 4.6%에 육박함. 30년물은 20년래 최고인 5.1%로 상승함. 특히 채권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미국과 국내 증시 PER은 하락 압력이 큼. 금리 불안이 확대되면, 증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함.
- “ 하지만 코스피가 급반전한 것은 단기 과열 영향이 큼. 코스피는 급락 직전 올해 86%, 3월말 이후 58%, 5월에는 19% 올랐음. 과열 부담이 누적되자, 코스피 일간 장중 변동률도 4월의 2%에서 5월 4%로 급등함. 과열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했음.
- “ 최근 코스피 급등은 이례적임. 99년 강세 국면과 비교할 만함. 99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20% 이상 조정이 2번, 10% 이상 조정도 2회 있었음. 주가가 강하게 오를수록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는 어려움.
- 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음.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으로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, 현재 환율시장 흐름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우호적인 것은 사실임.
- “ 하지만 25/11월 이후 외국인 순매도와 외국인 지분율(5/14일 39.6%)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됨.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20/3월 코로나 이후 고점을 넘어, 2005~06년 이후 가장 높음. 괴리가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하고 있지만,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 상승 폭이 훨씬 크기 때문임.
- “ 연초 이후 5/15일까지 코스피 시가총액은 2,577조원, 5월 이후 708조원 증가했고, 외국인 시가총액은 각각 1,092억원, 354조원 증가함.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 후 -81조원, 5월 이후 -26조원 순매도했음. 5월 이후 매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임. 외국인 시가총액 대비 각각 -4.6%, -0.9%에 해당함. 하지만 외국인 시가총액은 연초 후 91.4%, 5월 이후 18%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함. 늘어난 시가총액에 비해 외국인 매도 규모는 미미함.
- 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계, 조선업종에 대해 비중을 소폭 줄이거나, 정체를. 반면 IT하드웨어, IT가전(배터리), 운송, 상사자본재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리고 있음. 필수소비, 유통, 화장품 비중도 확대 중임.
- “ 단기 과열이 반도체 등 소수 업종에 편중됨. 쉬어갈 필요가 있으나,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대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음. 반도체 이외 IT하드웨어, 배터리, 일부 소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.

채권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PER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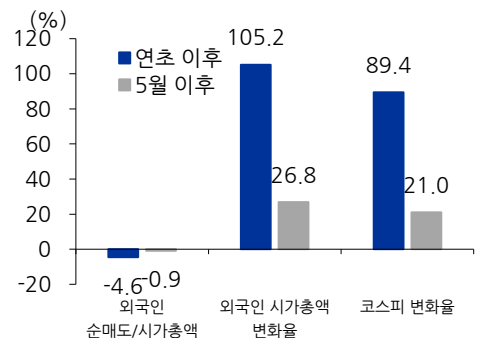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 순매도에도, 외국인 지분율은 40%에 육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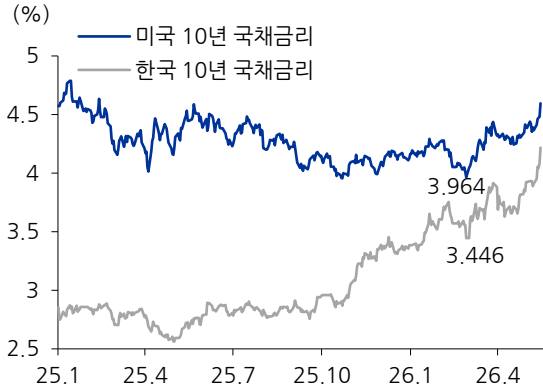
주: 5/14일까지, 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, 연초 이후 -4.6%, 5월 이후 -0.9% 순매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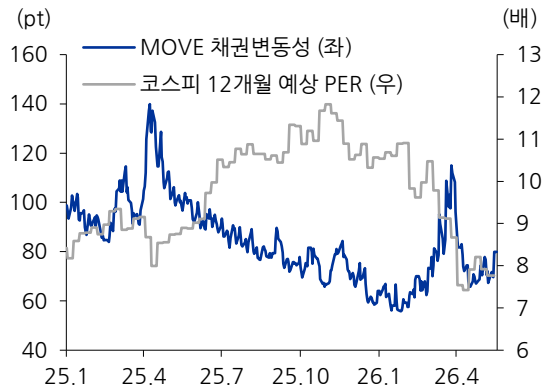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전쟁과 인플레이 확대 우려를 반영 중인 한미 금리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채권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밸류에이션 압박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현재 코스피 상승은 99~00년 이후 가장 가팔라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도 마찬가지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그저 오르기만 하는 강세장은 없어, 99년 사례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99년 20% 넘는 조정 2 번, 10% 조정도 2 회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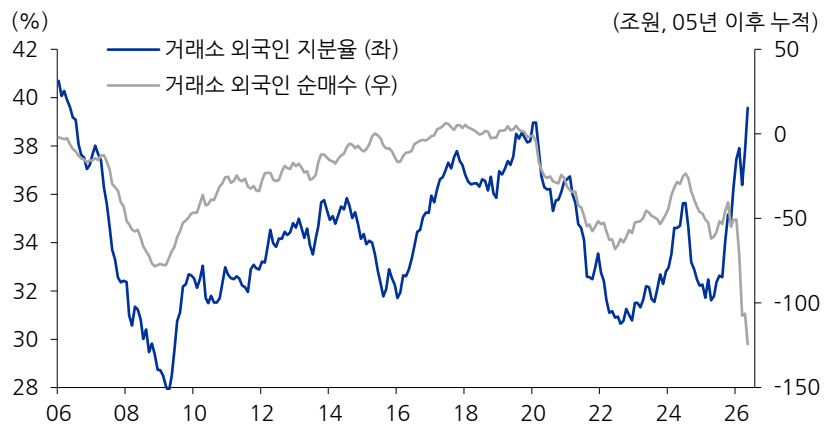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전통적으로 원화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 우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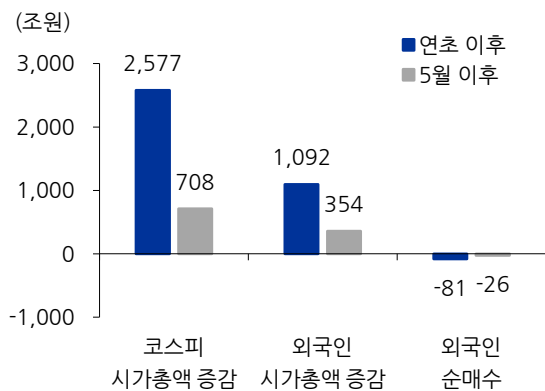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그러나 25년말 이후 외국인 순매수와 지분율 간 괴리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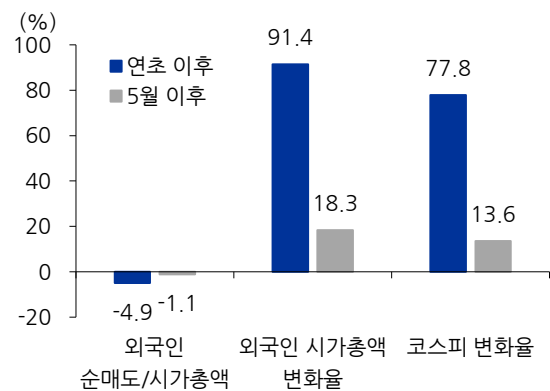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 시가총액 증가에 비해 매도 규모 미미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올해 외국인 시가총액은 90% 이상 증가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 지분율, 2006년 이후 최고(39.6%)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의 반도체 지분율은 50% 내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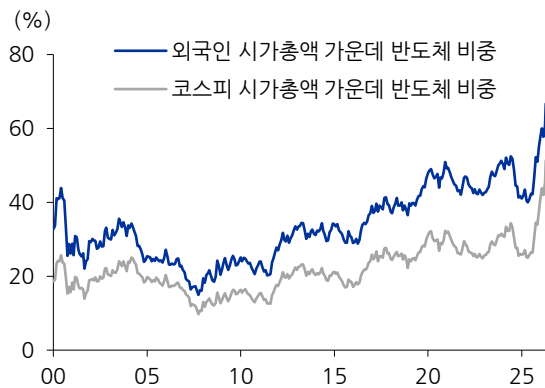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신흥국 내 한국 비중과 외국인 지분율은 대체로 동행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외국인 시가총액 가운데 반도체 비중 66.7%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국내 투자자들의 반도체 비중 확대는 25/11 월 시작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기계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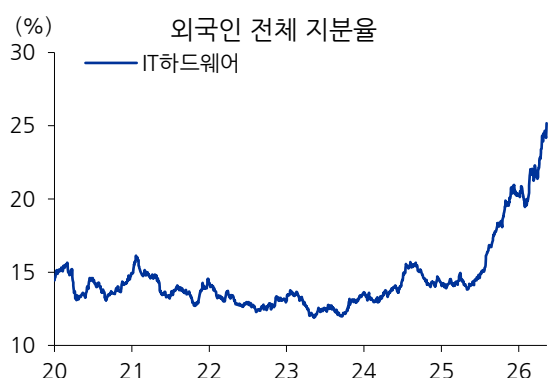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조선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정체


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지분율 기준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IT 하드웨어


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IT가전 업종에 대한 외국인 관심도 상승


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필수소비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승


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소매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관심


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